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전주매일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음 10월 29일) 제242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 확정

전북도, 예산 473억 투입 중기부·산업부 사업 통합 수립으로 범위 확대

전북도는 지난 2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산업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전라북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안)을 확정했다.

지역산업 진흥계획은 지자체가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지역 책임 하에 수립하는 자율계획으로,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사업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이자, 1년 단위 실행계획이다.

그간 중기부 소관 주력산업만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0년부터 산업부 소관 협력산업, 국가혁신클러스터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됐고, 2020년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추진방안(부처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전북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내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은 전북도 대표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 선도기업 생태계구축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업 기술혁신 역량 확충, 산업 위기지역 경제활력 제고, 지역 선도기업 중심의 성장환경 구축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 진흥계획 예산은 총 473억원으로 국비 309억원, 지방비 1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8년 대비 91억원이 증가(23.8%↑)한 예산으로 2020년 중기부 주력산업 신규 R&D 과제 지원 및 산업부 신규사업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따른 증가로 분석된다.

기존 4개의 주력산업을 지역별 특화도·집적도·성장성을 토대로 유망신산업, 성장산업, 재도약산업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유망신산업으로는 ICT 등 4차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 접목 가능성이 높은 지능형기계부품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성장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농생명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산업을 선정, 재도약산업으로 최근 3년간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해양설비기자재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성장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신산업 발전 추세 및 지역 내 파급효과를 반영하여 지역 내 거래관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선도기업군(타겟기업군)을 설정하고, 지역성장 기여도가 높고, 혁신·성장성이 우수한 거래관계 핵심기업을 '잠재→예비→선도' 단계별로 발굴·선별하여 각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추진과 더불어 지자체-지역혁신기관-민간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성장(스케일업) 로드맵을 수립했다.

아울러, ㈜명신 한국 GM공장 인수 및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등을 통해 위기극복의 발판이 마련된 상황으로, 이와 더불어 위기지역 전·후방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위기산업 연관기업 대상 비즈니스 모델 발굴, 4차산업혁명 연계한 융복합 산업으로의 구조 고도화 등 위기극복 지원시스템을 활성화 것이다.

시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우리도 3대 협력산업은 올해 선정된 29개 과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과제가 2년 연차사업으로 진행돼, 전기·자율차는 '상용 및 SUV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 개발', 에너지신산업은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프리미엄소비재(화장품)산업은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이라는 기존 프로젝트를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공공기관연계사업 또한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이라는 공통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농생명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 구축 기반을 활용한 장비구축, 기술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또한 ICT 수송기기(자동차, 건설기계, 조선)분야와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탄소융복합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대표 7개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을 통해 자생적혁신, 성장재도약, 사업다각화, 시장친화적 기업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계획수립을 주관한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대표산업에 대한 지역여건, 기업수요를 철저히 분석해 침체된 지역경기 및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산업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을 더욱 견고히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임실 문화마실 1호 개소식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을 발굴해 육성지원 사업인 문화마실 1호 개소식이 지난 22일 임실군 도화지 도예문화원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심민 임실군수가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 '엄정 중립'"

도체육회 등 공정선거 결의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체육인들이 '엄정 중립'을 강조하며 공정한 선거를 치르자고 입을 모았다.

지난 2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순창군에서 '전북체육회 회원단체 및 사무처 직원 직무연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체육회 전 직원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과 도 종목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직무연수에 앞서 이날 참석자들은 내년 1월 15일 치르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공정선거 결의대회를 열고 선거 중립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결의문에는 공명선거를 위해 위법한 선거 관여를 스스로 차단하고 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선거 바람에 휘말리지 않고 도민들의 체육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면 된다"며 "임직원들은 중립 입장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직무연수에서는 윤리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성 범죄·장애인 인식·개인정보),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어졌다. /장은성 기자

광한루서 '성혈' 발견

칠성 성혈(사진 왼쪽)과 원형 윷판 성혈.

선조들의 우주관 비밀이 풀릴 듯

남원광한루 오작교 상판석에서 '원형 윷판성혈'과 '칠성성혈'이 발견되었다.

이번 발견은 최근 지리산 문화자원연구소 김용근 소장과 남원시청 관광과 양선모 계장이 광한루 건립 600년을 맞아 광한루 속에 든 선조들의 우주관을 조사하던 성혈이 발견한 것이다.

남원시청 양선모 계장은 "그동안 오작교에 깃든 조상들의 우주관을 알 수 없었으나, 이번에 발견된 원형 윷판과 칠성 성혈로 광한루 오작교에 든 선조들의 우주관에 대한 비밀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오작교의 우주관 비밀 의문은 ▲첫째, 오작교 다리구멍이 4개인 점과, ▲둘째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날의 문화적 실체 ▲세번째로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 상판의 지점 등 이었다.

이번에 발견된 원형 윷판은 오작교 상판석 중앙에, 칠성성혈은 오작교 우측 상판에 성혈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한 40여 년간 남원과 지리산 주변의 향토사를 연구하고 있는 김용근 소장은 "윷판의 원형은 달나라의 우주이고, 윷판 가운데 가로세로로 새겨진 7개의 성혈은 칠월과 칠석의 상징"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윷판 가운데 열십자의 가로 세로 별 성혈 중 동서남북의 네게 구멍은 오작교 다리 네 구멍의 상징으로, 이는 오작교를 지날 때마다 남녀노소, 동서남북, 춘하추동, 사농공상 같은 인간 중심의 상징을 우주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원광한루 오작교는 옥황상제의 딸 직녀와 목동 견우의 사랑이야기를 가진 지상의 전설 다리로, 선조15년(1582)에 남원부사 장의국이 광한루를 수리하면서 다리를 새로 놓고 오작교라고 부르게 되면서부터 광한루의 대표적인 명물로 자리매김 했으며, 현존하는 연지교중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남원=김기두 기자

매일 INDEX

4면 - 덕진보건소, 내년부터 건축물 신축 본격화
16면 - 전주시의회, 올 상반기 의정활동 결산